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3·1운동 100주년, 새로운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

3·1운동 100년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열렸다. 서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이 문제인 대통령 등 삼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00년 전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단체들은 종로구 경운궁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민족화해협력범민족협의회는 제1차 조선인 유골봉환 남북공동사업 '조선의 혼, 아리랑의 귀환'의 이름으로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시민들의 자발적 단체인 '3·1민회'는 서울시장 다목적실에서 기념행사를 했다.

나는 '3·1운동 100주년기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주최한 기념대회에 참석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설치된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행사를 동참했다. 시민들은 애국가도 4절까지 부르고 기념사, 독립선언서와 3·1운동 100주년 자유·평화·상생 선언문 낭

독, 3·1절 노래와 만세 삼창으로 기념식이 끝날 때까지 선제로 참여했다.

10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격언(格言)처럼 10년 단위의 시간 개념도 인간 사회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100년은 세기(世紀)라고 부른다. 우리는 지금 2001년부터 2100년 까지를 뜻하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100년이면 인간도, 세상도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한다. 일제 식민 강점 아래에서 목숨을 바치며 태극기 하나 들고 평화적으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선열(先烈)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광막한 만주 벌판에서, 삭풍(朔風) 몰아치는 연해주 황무지에서 '조국 독립'을 위하여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면서 싸우다가 산야에서 쓰러져간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위대한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는 역사와 시대를 꿰뚫는 정확한 진단이요 처방이다.

문 대통령은 '친일은 청산하고 독립은 모셔야 하는 단순한 진실을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했다. 친일 세력이 민주세력, 민족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색깔론과 빨갱이라고 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시작이다.'고 했다. 일제 시대 친일 세력이 해방 후에는 독재 세력이 되고 권력과 부를 거머쥔 기득권 세력으로 민주와 통일 방해하는 세력이 되었다.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친일하면 3대가 평평거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없어야 도록 노력하겠다. 아직도 국내외 해외에 찾지 못한 독립 유공자와 독립자료가 많다.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역사의 과오를 지금이라도 추분민심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기 전에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차원에서 과감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100년은 일제 식민 지배와 해방, 분단과 전쟁, 가난과 이념

대립, 독재와 피의 저항, 산업화와 민주화 등 참으로 고난과 굴곡(屈曲) 많은 역사였다. 함난한 시련의 세월 속에서 서구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수십 년만에 압축성장을 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고난 속에 이룩한 위대한 성취다.

앞으로 100년은 한 마디로 '정의로운 나라'여야 한다. 소수자와 약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포용국가여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지금 빈부 격차의 심화, 소득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요 최대 숙제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더 잘 살고 못하는 사람은 더욱 못 살게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지속 발전이 가능하지도 않다. 다함께 행복할 수는 더더욱 없다.

가까운 사람부터 배려하고 협력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시급한 국가 정책과제로 삼아서 추진해야 한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남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의식과 사회 풍토는 사회발전·국민통합이나 남북화해·평화통일을 찾기 전에 모두가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

3월 4일(월), 경영학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나의 아들을 축하하려 간 서울대 입학식에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각자도생(各自爲生)해서는 안되고 진리를 향한 자유인이 되어서 배우고 남을 먼저 돕고 서로 협동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오세재 총장의 식사(式辭)는 가슴에 와 닿았다.

社說

군대 내 인권침해 없어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징계 수단으로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는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인다.

국방부는 현행 강등·영창·휴가 제한·근신으로 구성된 병사 징계벌목을 강등·군기교육·휴가 제한·감봉·근신·견책으로 변경 조정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제시했고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창을 다른 징계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의 장에게 촉구했다.

중전에는 군기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최장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인권자문위원회'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인권침해 사고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건 조사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부대당 1명씩 총 100여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적 지시 근절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사적 지시나 운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부 내 '성폭력 예방·대응과' 신설,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군 인권 평가지표 운용 등도 추진된다. 또 현역병이 민간 병원 외래 진료 희망 시 지휘관 승인만으로 군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군이 사후에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군대 내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學優登仕

배울 학, 노력할 우, 오를 등, 섬길 사. 學優登仕. > 뜻: 배운 것이 노력하면 벼슬에 오를 수 있음.

산불많은 계절 담배불씨 조심해야

이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이 다가온다.

산에서는 아름다운 새싹들이 기지개를 활짝펴고 하늘을 향해 마음껏 자태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이다.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은 산행객들의 실수와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식을 전후하여 흔히 이뤄지는 조상의 묘지 이장과 유품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가끔씩 운전을 하다보면

차창 밖으로 담배꽂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자주 볼 수 있다. 양심을 버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정서가 이 정도인가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만약에 버려진 장소가 도로가 아닌 산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이러한 담배불의 온도는 약 500℃이고 피우고 있을 때는 800℃나 되는 고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담배불로 인한 산불의 발생건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배불 화제의 주요원인

은 운전중 또는 보행중 담배꽂초를 버리거나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연물질로 만들어진 휴지통에 꽂초를 버렸을때 등산 중 휴연후 숲속에 담배불을 버리는 행위 등 수많은 원인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사소한 담배불씨 하나로 인해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다함께 가져 아름다운 우리들의 자연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자. 염용태 / 염양소방서 소방민원팀장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ped our positions?). It includes text about empathy and a logo for '한국언론진흥재단'.